

이정택 신임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



“종교 화합·노인복지·다문화지원 사업 나서겠다”

“인연”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 같습니다. 출가를 결심한 곳에 교구장이 되어 앉으니…, 출가 때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대중 교회에 힘쓰는 책무를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근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에 취임한 전산 이정택(63)교구장은 “민주화의 성지이자 원불교의 성지(영광)인 광주에 부임하게 꽤 영광스럽다”며 “학창시절을 보냈던 곳이어서 더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에서 자란 이 교구장은 전남대 재학 중 원불교 대학생회에서 활동하다, 출가의 뜻을 품고 원광대 원불교학에 편입해 성직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된데에는 광주교당 특별유공인이며 초대 봉공회장과 주무를 역임한 어머니 수타원 김순숙여사의 영향이 커다.

이 교구장은 1975년 원불교 부산 초량교당을 시작으로 대전, 서울 전농 교당을 거쳐 원불교 교정원 교육부 서원관 사감 및 중앙총부 감찰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원불교 최고의 결기구인

수위단에 피선되어 종법사를 보필하다, 2007년 대구·경북 교구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수도사로서 “급히 말고 쉬지 말고 정성으로 행하라”는 말을 신양적 소신으로 삼고 있다는 이 교구장은 “원기 100년을 5년 앞두고 있는 만큼 교세와 영향력을 키워 원불교가 지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교구장이 터를 박아온 ‘살아나 운동’(살립·아낌·나눔)의 줄임말로, 생명과 평화를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덕목을 갖추어 나가자는 운동”으로 계승하고 대종사의 가르침대로 ‘교화·교육·자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구장은 청소년과 청교협 교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원불교의 활로는 청소년과 청년(30~40대)에 있다”고 말하는 이 교구장은 이를 위해 ‘찾아가는 교화’를 통해 청소년 교회활동을 강화하고 교리대학과 단체·지구별 활동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종교 화합,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48개 교당이 단합해 ‘재활용장터 보물섬’ 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법인 ‘원빛골’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자선사업도 활발하게 펼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이미 터를 잡아 놓은 수완지구 교당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수완지구 교당은 올해 기공할 예정이다.

이 교구장은 이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앞두고 종교사회단체별로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광주민주화운동이 주는 메시지가 화해와 소통이라는 점에 유념해, 이번 행사가 한풀이 장이 아니라 종교 지역, 문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담양군 아이티돕기 628만원 전달



주영천(왼쪽에서 세번째) 담양군수권한대행은 2일 광주·전남 학습지사(회장 김필식·) 두번째를 방문해 군 산하 공직자와 군민들이 모금한 628만원을 아이티 이재민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담양군 제공>

전남대 아이티돕기 성금 모금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교직원 및 학생들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국)와 공동으로 아이티돕기에 나서 각 단과대학 등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오는 10일까지 성금을 모금한다.

조선대-日 고베가쿠인대학 교류 협정



조선대(총장 전호중·앞줄 오른쪽)는 최근 일본 고베시의 고베가쿠인대학(총장 오카다 요시오) 포트아일랜드 캠퍼스에서 학생 및 교수 상호 방문 등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전남농협 ‘이달의 새농민상’ 선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새농민상’ 2월 수상자로 라우석(40·임진주 39·장성군 삼서면)씨 부부와 김종민(56·설순애(53·진도군 지산면)씨 부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길농장을 운영하는 라씨 부부는 칼슘보강 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사과를 생산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함평출신 재미사업가 정영인 회장

아이티 돋기 70만달러 의류 기증

함평 출신의 재미 사업가가 아이티 주민들을 위해 70만달러(약 8억 2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기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 출신의 정영인 회장(66)이 경영하고 있는 의류업체 ‘터보홀딩스’가 최근 주 뉴욕 아이티 총영사관과 자선단체에 70만 달러 상당의 의류 1만3천벌을 전달했다.

‘터보홀딩스’는 연매출 1억2천만 달러(약 1천400억원)를 올리는 터보그룹의 계열사로 정 회장은 제7



차 세계한상대 회 한상 리딩 CE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회장, 세계해외 한인무역협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 정 회장은 고향에서 열린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고문을 맡아 활동하며 후원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이광기 ‘아들 보험금’ 아이티 성금 기부

텔런트 이광기(오른쪽)가 지난해 신종플루로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아이티에 기부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은 이광기가 아들 석규준의 이름으로 받은 보험금 전액을 아이티 긴급구호후원금으로 냈다고 2일 밝혔다.

이광기는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석규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자식을 잊고 슬퍼하고 있을 많은 아이티의 부모들을 생각하며 후원금이 소중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광기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월드비전을 통해 죽은 아들과 같은 나이



인 7살의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아동들을 후원해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보름 연날리기 모집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원장 나무석·사진)이 ‘대보름 소원성취 연날리기 행사’에 참여할 학생, 일반시민 등을 모집한다. 행사 참가인원은 150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이중 50명은 유종호 광주시연보존회장의 지도 아래 ‘전통 연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연 만들기’ 체험행사는 오는 16일 오후 1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에서, ‘연 날리기’ 행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복지관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학생이나 일반시민이 건강타운에 사전접수하면 연 제작과정 없이 건강타운이 사전준비한 ‘기성품 연’에 참가자의 소원을 적어 하늘로 날리는 ‘연 날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문의 062-603-8827, 8849)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회원작품전 20걸상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김형곤 조선이공대학 총장이 최근 제 6회 한국누드사진가협회 회원전에서 10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 47회 전국회원작품 회원전에서 20걸상을 수상했다.

</